

# 기림사-감은사지-수중릉 신라불교 순례길



## (104) 함월산 기림사

경주의 변방 동해구(東海口)에 등장하는 만파식적의 옛 땅이다. 신라가 바다를 통해 해외로 드나들던 동해구는 지금 감포와 울산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이다. 동해구에는 신라 통일 전후에 지어진 옛 절들이 많다. 그 중 기림사가 가장 큰 가람이다.

경주에서 동해구로 넘어가는 4번 국도는 신라 역사의 호젓한 뒷안길이다. 도중에 만나는 추령은 토함산과 함월산 중간에 위치한 향남기맥의 한 고개이다.

기림사는 인도스님인 광유성인(光有聖人)이 임정사(林井寺)라는 이름으로 처음 창건했다고 한다. 기림사는 삼국통일을 전후해 동쪽변방을 괴롭히던 동해구를 지키기 위해 세운 호국사찰이다.

호암천 위에 걸린 임정교 다리를 건너면 넓은 주차장 한 편에 대숲이 인상적이다. 대나무는 불교의 고향 아열대지역의 식물이기 때문에 사찰 주변의 식생으로 잘 맞아떨어진다.

일주문부터 느티나무, 서어나무, 말채나무 등 비교적 나이 많은 활엽수들이 숲을 만들고 있다. 절이 앉은 형국 또한 기묘하여 일주문만 아니면 산속에 절이 있음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

천왕문을 지나면 왼쪽에 수각이 있고, 맑고 찬 물이 졸졸 흘러나온다. 기림사에는 일찍이 소문난 다섯 가지 약수가 있는데, 이를 오종수(五種水)라고 불렀다. 기림사라는 이름 이전에 사용했다는 임정사(林井寺)라는 이름도 이 물을 인연으로 해서 지어졌을 것이다.

대적광전 공간으로 들어서면 모자형 마당에 반송이 자리하고 있다. 기림사 반송은 우리나라 절집 반송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반송으로 손꼽힌다. 해방 전 기림사 사자에 없는 결 보편 해방 후에 식재된 듯하다. 반송은 조경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약사전 앞마당 약간 두드러진 곳은 목탑이 있던 자리이다. 얼마 전까지 목탑 자리에 수평 500여년의 늪은 피나무(보리수)가 있었는데, 태풍에 꺾여 지금은 그 자리에 피나무가 관목처럼 수북하게 자라 있다.

하단은 그냥 평평한 데 비해 상단은 파쇄석 자갈이 깔려 있다. 연병장처럼 상단 마당 가운데 노랑(老翁) 한 그루가 심겨져 서 있고, 풀담 주변 배롱나무엔 때때로 나무마다 꽃이 만발하고, 왕벚나무 등결엔 잠시 지나간 소나무에 지의류들이 파랗게 웃을 감아입는다.

곤충들은 대체로 햇볕을 좋아한다. 일사량이 많은 경내 숲 가장자리는 곤충들의 해방구다. 기림사는 여러 종류의 여름 꽃들이 있어서 나비류들이 다양하고, 햇볕 좋은 시내가 있어 잠자리들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리장수잠자리는 왕잠자리과에 속하는 대형 잠자리이다. 몸 색깔은 녹색이 중심을 이루고, 가슴의 크기에 비해 머리가 작으며, 배의 각 마디에는 양쪽에 황색 무늬가 있다. 날개는 투명하고 날개맥은 흑갈색이다. 여름에 주로 구름지나 산간 계류 등에 나타난다.

삼천불전 동쪽 기둥에 손가락 굵기 만한 구멍이 여럿 뚫려 있다. 하늘소나 왕바구미 등 딱정벌레들이 드나드



감은사지 당나무.

## ‘임정사’로 창건된 기림사, 동해구 수호 호국사찰 마구잡이 방생에 붉은귀거북 대중천 ‘생태교란’

는 구멍이다. 녀석들은 그 안에 집을 짓고, 목질을 갠아 먹고 산다. 그냥 놔두면 목재의 수명이 단축된다.

삼성각 주변 물 고인 곳에 무당개구리가 보인다. 기림사 주변의 양서류는 참개구리, 황개구리, 산개구리, 두꺼비 등이 관찰된다. 파충류로는 절장지뱀과 유혈목이가 관찰되었고, 주민들의 말로는 함월산 일대에는 능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도 살고 있다고 한다.

매월영당 뒷숲은 인적이 없어 새들의 지대방이다. 여름새인 피코리가 새끼를 쳐서 이소(離巢)를 시켰다. 어린 피코리들이 뒷숲에서 비행 연습을 하느라 여기 저기 날아다니고 있다. 호암천 물기에는 물까마귀, 꼬마물떼새, 노랑할미새, 검은머리해오라기 등이 눈에 띈다.

기림사 경내에 조경 목적으로 식재된 나무들은 단풍나무, 배롱나무, 산수유, 향나무, 보리수, 석류, 왕벚나무, 소나무, 갈나무, 석류, 자귀나무, 영두나무, 옥매, 수수꽃다리, 박태기 등 눈에 띄어 어울림이 좋다. 외래종은 나무수국, 독일가문비나무, 남명도 뿐이다.

초본의 경우는 하단보다 상단이 더 다양하고 화려하게 식재되어 있다. 맥문동, 왕원추리, 발개미취, 봉선화, 도라지꽃, 옥잠화, 초롱꽃, 범부채, 국화, 상사화 등 우리의 토종초본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다른 절들과 차별화된 멋이다.

보물로 지정된 건칠불상은 종이나 삼베 등으로 불상을 조성한 뒤 옷칠을 하고 다시 도금해 조성한다. 이러한 건칠불상 문화는 중앙아시아와 티베트를 원산지로 하는 율리야가 중국에서 고려 유학승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뒤에 크게 발전하였다.

호암천 상류 계곡길은 일주문계 숲거리로 되돌아가면 왼쪽으로 나있다. 언저리부터 기림사에서 상수원과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시냇길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덕분에 자연이 많이 되살아나고 있다.

호암천 상류는 소규모 산간계류 형태를 보이며, 하상은 작은 돌과 자갈로 구성되어 있다. 수생식물들이 곳곳에 군락을 이루고 있어 자연성이 양호한 상태이다. 설악산이나 가야산 홍류동계곡에서 볼 수 있는 물까마귀도 이 계곡에 살고 있다.

시냇길을 따라가면 감포암이 나오고, 거기서 계속 올라가면 토박이 사람들은 ‘도룡골’이라고 부르는 산중에 이른다. 서라벌-추원-마차골(모차골)-세수방-불령재(부처고개)-용연폭포-기림사-대중천-수중릉을 잇는 길이다.

함월산의 식생은 온대남부수에 해당한다. 키 큰 나무로는 신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유나무 등이 우세하다. 그보다 키 작은 나무들로는 미역



위에서부터 문우왕 수중릉, 어리장수잠자리, 등에 이름이 쓰여진 방생 거북.

줄나무 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함월산은 동해남부의 기후 영향으로 난대식물인 나도밤나무와 사람나무 등도 나타난다고 한다.

미역줄나무는 햇볕이 좋은 산중턱이나 숲의 가장자리에서 많이 관찰된다. 텃굴성을 띤 줄기와 가지가 2m 가량 자란다.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고 달걀 모양이다. 꽃은 여름에 피고, 가을에 붉은 빛이 도는 연록색 열매가 익는다.

초본종에는 어수리, 독활, 산박하, 기름나무, 배조향, 뽕나무, 파리풀, 단풍취, 참취, 애가나리, 홀아비꽃대, 제비꽃, 계오동, 양지꽃, 노루발, 대사초, 구절초, 큰기름새, 그늘사초 등이 분포한다.

어수리는 미나리와 같은 종류로, 주로 산기슭 빈방양지에서 흔히 관찰된다. 굵고 속이 빈 줄기는 1m 이상 자란다. 여름이 깊어지면 가지 끝에 흰색 꽃이 우산처럼 펼쳐져서 핀다. 산중 절집에서는 봄에 어린잎을 뜯어다 나물로 먹는다.

독활도 키가 1m 이상 자란다. 줄기는 굵고, 잎은 달걀 모양이다. 어수리와 비슷한 시기에 흰색에 가까운 연록색의 꽃을 피운다. 가을에 까만 열매가 꽃이 진 자리에 열린다. 이른 봄에 어린 순을 먹는다.

부처고개(佛綱)로 올라서면 봉포석(封標石)이 있다.

화강암에 ‘연경묘 향탄산인 계하 불령봉표(延慶墓 香炭山 因 啓下 佛嶺封標)’라는 글씨가 음각되어 있다. 조선 순조의 아들인 익종의 연경묘 제사 경비를 얻기 위해 이 산에서 숲을 구워 팔았는데, 이를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통제를 알리기 위해 세운 표석이다. 함월산 지역의 숲이 비교적 잘 보존된 것도 여기에 기인했을 것이다.

감은사지로 발걸음을 옮긴다. 감은사는 기림사에서 사십릿길이나 떨어져 있지만, 장항리사지-기림사-굴굴암-감은사-이전대-대중천-문우왕 수중릉 코스는 신라불교의 성스러운 순례길이다. 생태적으로도 모두가 한 권속들이다.

감은사는 현재 동림을 보수하는 중이다. 절터 한편에는 오랫동안 당나무로 모셔진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잎질 보면 한 그루처럼 보인다. 절터 동쪽 가장 자리에는 잘 자란 큰 굴솔(해송) 세 그루가 있고, 절터로 올라가는 들계단 좌우에는 중국단풍나무 두 그루가 금강역사처럼 서 있다. 절터 뒤로는 대숲과 활엽수숲이 푸르게 자리하고 있다. 능선이 가까운 곳에는 소나무들이 우점하고 있다.

이전대는 신라왕이 동해의 용이 된 부왕을 전진하고, 검은 옥매와 대나무(만파식적)를 하사받았다는 전설의 현장이다. 대중천 다리를 건너기 전 감포 쪽으로 난 도로 옆에 자리하고 있다.

이전대 앞에 대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옛 전설을 다시 되새기게 하지만, 만파식적을 만들기에는 너무 빈약해 보인다. 신라 범종에 있는 음관(音管)의 모습이 만파식적에서 비롯되었다면 만파식적을 만들어낸 대나무는 왕대였을 것이다.

대중천은 토함산과 함월산 골짜기들이 모여서 동해로 들어가는 지방하천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동해천’으로, 1917년 나온 지도에는 ‘대중천’으로 나와 있다. 바다와 접한 대중천의 모래톱에는 해풍에 강한 갯메꽃이 자리하고 있다. 바닷바람과 소금기에 강한 갯메꽃은 바닷가 모래밭에 뿌리를 깊숙히 내리는 텃굴식물이다. 깊은 수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두껍고, 뜨거운 햇볕을 반사하기 위해 표면에 윤기가 난다.

대중천 하류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철따라 바다를 오르내리는 2차 담수어로는 큰가시고기와 송어, 은어, 망둥어 등이 있다. 봄이면 큰가시고기가 산란을 위해 올라오는데, 수질과 환경에 매우 민감하다. 게다가 물을 차고 오르는 힘이 약해서 물막이 보가 있는 곳은 거슬러 올라오지 못한다. 그래서 점차 개체가 줄어들고 있다.

대중천은 방생처로 오랜 명성이 있다. 대중천에는 불자들이 합부로 방생한 붉은귀거북이 쉽게 눈에 띈다. 초여름이면 모래나 자갈밭에 알을 낳는다.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새끼가 부화되어도 걱정이요, 부화되지 않고 썩거나 홍수에 떠내려가도 걱정이요.

대중천 다리 건너면 대본리 해변, 모래와 까만 자갈이 깔려 있다. 문우왕 수중릉으로 전해오는 대왕암이 바닷가에서 100m 거리에 떠 있다. 옛부터 이곳 사람들은 ‘맹바위(대왕바위)’로 불려오다.

김재철(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충주
노해용	1972년생	173	고졸	C E O	청주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구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일반전문직	구미
임태민	1981년생	180	대졸	공무원	천안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울
홍보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회사원	경기고양
최명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시흥
오상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한웅석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전주
최경복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충북영동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대전
임준호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사원	경기용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졸	공무원	경기이천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사원	경북예천
강정복	1965년생	170	고졸	자영업	인천
정지영	1974년생	174	중졸	회사원	수원
임인갑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구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졸	금융직	서울
김중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울진
이영일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종우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졸	공무원	서울
이동원	1970년생	172	대졸	회사원	서울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졸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졸	퇴직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졸	졸업생	광주광역시
김정영	1970년생	163	대졸	복지사	충주시
박영학	1967년생	170	고졸	회사원	고양시
홍진석	1968년생	167	대졸	시설관리	부천시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울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배병인	1967년생	169	대졸	회사원	부산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차기공사	서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졸	건설사	광주시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	자영업	서울
권순식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	경기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	자영업	전주시
문윤중	1970년생	163	고졸	자영업	광주시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민익식	1969년생	172	고졸	회사원	부산
최정우	1978년생	178	대졸	건설사	서울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회사원	진해시
정영준	1959년생	165	고졸	공무원	충남
오세준	1955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도
박헌득	1964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임상훈	1973년생	172	대졸	회사원	경기도
연길호	1973년생	175	대재학	공무원	경기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졸	회사원	대구시
박종우	1971년생	170	대졸	건설사	제천시
최용우	1962년생	164	고졸	자영업	홍성군
조현민	1972년생	166	고졸	조리사	경기도
김진욱	1969년생	170	고졸	공무원	충북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회사원	대구
서중은	1971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건우	1971년생	173	대졸	자영업	경주시
박찬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원공사	강원도
모용우	1973년생	177	대학원	교육직	경기도
박대식	1974년생	175	대학학	영업	충남
최병익	1974년생	176	고졸	회사원	서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정지민	1970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정일호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서울
박선준	1974년생	175	대학	회사원	인천
진인덕	1965년생	157	대학	농업	경북
연태현	1973년생	182	고졸	회사원	전북
전홍배	1979년생	170	대졸	자영업	대전
박정은	1972년생	168	대졸	학원강사	충북
강충남	1973년생	162	고졸	회사원	전북
손중현	1971년생	170	고졸	회사원	전북
김대수	1973년생	170	대졸	교육직	서울

현대불교신문 독자와 인연찾아주기

##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장천석	1967년생	175	고졸	회사원	서울
안상기	1966년생	185	고졸	공무원	충북
정우철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충북
김윤구	1979년생	170	대졸	회사원	경기
정효승	1975년생	170	대졸	회사원	대전
유준호	1971년생	176	대졸	회사원	대전
왕현민	1973년생	179	대학교	재학생	대전
박대현	1977년생	168	고졸	회사원	충북
박병진	1975년생	182	고졸	공무원	충북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건축	경기
양명진	1955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남
이종철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경기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충북
박진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충북
배중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충북
김상기	1975년생	170	고졸	조리사	충북
이종호	1976년생	163	고졸	회사원	충북
오진철	1974년생	170	대졸	회사원	충북
이상경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충북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충북
정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충북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사	충북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융	충북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철도공사	충북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에게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

전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